



왼쪽부터 오준혁, 황대인, 최용규, 김호령.

아기 호랑이들 ‘주전 발탁’ 고지를 선점하라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9위 후보 KIA 타이거즈의 기대 이상의 선전이 었다. 쉽지는 않지만 가을잔치의 가능성이 남아있고, 고민이었던 마운드가 생각보다 견고하게 다져지면서 내년 시즌 구상 폭도 넓어졌다. 발목을 잡아왔던 수비도 안정감을 찾으면서 전력의 상승했다.
그럼에도 ‘기회의 시즌’에 화려하게 이름을 남긴 새 얼굴이 없다는 점이 진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깜짝 활약을 있었지만 꾸준하고 강렬한 야수의 탄생이 없었던 점이 ‘욱에 티’다.
올 시즌 KIA의 내·외야는 무주공산이었다. 리빌딩 시즌에 맞춰 많은 이들에게 기회가 돌아갔다.
이은총·황수현·최병연 등이 처음 1군 무대를 밟았고 이적생 오준혁·노수광, 신인 김호령·황대인도 기회를 받았다. 김선빈-안치홍의 동반입대 속 강한올과 박찬호, 예비역 최용규에게도 신세계가 열렸다. 그러나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새 얼굴

KIA 내·외야 ‘리빌딩’ 무주공산
김호령·이은총 등 깜짝 활약 뿐
강렬한 스타 탄생 없어 아쉬움
연습처럼 편한 맘으로 임해야

이 없다. 김호령의 이름이 한 때 뜨겁게 회자되기는 했지만 수비 외적인 부분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서 입지가 좁아졌다. 강한올도 한 때 부족한 준비와 성적으로 2군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고, 뒤늦게 기회를 잡은 박찬호는 공격에서 빈틈을 보였다.
며칠 전 훈련 시간에 “저러면 안 되는데”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번트 훈련을 하고 있던 한 선수를 지켜보던 선수 출신 프런트의 반응이었다. 특공 공을 맞추고만 있는 모습을 보고 나온 잔소리였다. 잔소리가 쌓이면서 큰 소리가 나온 적도 있다.
KIA는 해야 할 주축 타자들의 동반 부진으로 시즌 내내 공격 최하위 자리를 독점해 왔다. 부족

한 화력을 만회하기 위한 작전이 동원되고 있지만 쓰리번트 실패 등 작전 수행 능력에서 여러 차례 문제점을 노출했다. 작전 실패는 이닝뿐만 아니라 전체 경기의 흐름까지 바꾸기도 한다. 여러 가지 계산을 하면서 실전처럼 집중해서 연습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전 같은 연습으로 자신감 있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하나의 경쟁력이다.
지난 17일 kt와의 홈경기, 1-3으로 뒤지던 9회말 2사에서 상대 실책으로 2사 1·2루의 기회를 잡았다. 벤치의 사인과 함께 2루에 있던 강한올이 1루 주자 신종길과 동시에 스타트를 끊었지만 뒤돌아볼 것도 없이 너넨한 타이밍으로 아웃이 됐다. 허무하게 종료된 경기. 전날 베테랑 김민우와 2루에 이어, 3루까지 훑치면서 승리의 분위기를 가져왔던 것과는 다른 모습, 다른 결과였다. 경험 부족의 선수의 경직된 플레이로 실패로 끝난 작전, “실전은 연습처럼”이 필요한 장면이었다.
기회의 시즌을 흘러보면 이들에게 이제 10경기가 남았다.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으로 이름을 확실하게 남겨야 한다. 내년에도 이어질 ‘기회의 시즌’. 기회가 다른 이에게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찬호 생일이었냐? 장타를 두 개나 날리더라”

덕아웃 T 특특

▲도 비가 오네요=23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KIA와 LG의 경기가 우천취소됐다. 그라운드엔 내리는 굵은 빗줄기를 보고 발을 동동 굴러던 선수가 있었다.
안타까운 표정으로 하늘을 보고 있던 선수는 내야수 고영우였다. 이날 선발 출전이 예정됐던 만큼 아쉬운 비가 된 것이다. 고영우는 “저번에도 한번 스타팅으로 나가기로 했었는데 비가 왔었다. 또 비가 온다”고 씩씩하게 웃었고, 선발 라인업에 빠져 있던 박찬호도 “어떻게 해요”라며 자기의 일처럼 안타까워했다.
▲어제 생일이었냐? =비 때문에 실내에서 진행된 수비 훈련. 김중국 코치가 박찬호를 보고 “어제 생일이었냐”고 웃었다. “장타를 두 개나 날리더라. 생일이라도 되는 줄 알았다”면서 애정 담긴 구박을 한 것이다. 박찬호는 22일 LG와의 경기에서 대수

비로 들어간 뒤 두 타석에서 중전안타와 중견수 플라이를 기록했다. 플라이로 몰러나가는 했지만 잘 맞았던 타구였다. 박찬호에게는 안타 하나하나가 절실한 상황. 박찬호는 지난 9월6일 삼성전부터 남은 23경기의 ‘타율 0.250’을 놓고 김기태 감독과 ‘상금 100만원’, ‘캠프 무휴일’을 놓고 내기를 했지만 이 안타까지 18타수 2안타에 그치고 있다. 매일이 생일 같아야 하는 박찬호다.
▲빨래 안 해도 된다=예비 신인 최원준이 23일 경기장을 찾았다. 서울고 내야수인 최원준은 2016 신인 드래프트에서 KIA의 1라운드 지명을 받은 유망주다. 김기태 감독은 어린 선수에게 이런저런 덕담을 한 뒤 “앞으로 빨래 안 해도 된다. 내어 놓으면 다 해준다”고 말해 사람들을 웃겼다. 아마시절과 달리 다른 일에 신경 쓸 것이 훈련과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김 감독은 “앞으로 야구에만 집중하면 된다. 열심히 하라”며 예비 신인을 반겼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세영 “LPGA 신인왕 욕심난다”

“한국서 우승 더 힘들어”

“LPGA 신인왕 타이틀은 꼭 하고 싶어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김세영(22·미래에셋)이 이번 시즌 LPGA 신인왕에 대한 욕심을 숨김없이 내보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YTN·볼빅(24~26일) 여자오픈에 나서는 김세영은 23일 경기도 양주시 레이쿠드C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LPGA 신인왕은 꼭 하고 싶은 타이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세영이 이번 시즌 KLPGA 투어에 출전하는 것은 처음이다. 김호주(21·롯데)에 앞서 LPGA 신인왕 포인팅 1위를 달리는 김세영은 “내가 신인왕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다음은 김세영과의 문답.
-올해 LPGA에서 김호주와 신인왕을 다투고 있는데, 각오는?
▲한국에서 신인왕을 못해서 미국에 가서는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꼭 하고 싶은 타이틀이다. 한국에서 못한 것을 만회해 최대한 목표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현재는 내가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웃음)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와 샷은.

▲롯데 챔피언십 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그 전 ANA 인스퍼레이션 우승을 아깝게 놓쳤다. 마지막 날 너무 힘들었는데, 바운스백을 하면서 기쁘고 어느 정도 한이 풀렸다.그런 간절함이 마지막 플레이오프 세컨샷으로 이어진 것 같다
-그것이 생애 최고의 샷인가.
▲기억에 남는 샷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화 클래식에서의 홀인원은 정말 잊지 못할 것 같다.
-한국과 미국 골프 차이가 있다면.
▲한국 선수들은 스코어가 정해져 있다. 잘 치는 선수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미국 선수들은 기복이 있고 한 번 잘치면 날라간다. 미국 골프장 코스는 잘 맞는 것 같다. 과감하게 공격하면 보상이 온다. 한국에서는 스트레이트만 잘 치면 우승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더 느끼는 것 같다. 한국이 우승하기 더 힘들다. 내 타입으로는 한국 골프장은 정해진 대로 쳐야하지만, 미국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질 수 있다.
-이번 대회 각오는?
▲팬들이 보고 싶어하는 플레이, 팬들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플레이를 보여드리겠다. 실수에 대한 것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파5홀에서는 투온을 시도하겠다.



전국체전 사전경기 광주·전남 산뜻한 출발

광주, 펜싱 금 등 15개…전남, 복싱 금 2 등 11개

광주·전남 선수단이 ‘제 96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산뜻한 출발을 시작했다.
23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광주선수단은 전국체전 사전 경기로 치러진 펜싱·체조·핸드볼·복싱 등 4개 종목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8개를 획득했다.
특히 광주체육회 펜싱팀이 지난 20일 광주·전남 선수단의 첫 금메달을 안기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한 데다,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한국신기록을 낸 김국영(100m)과 김덕현(멀리뛰기·세단뛰기) 등의 선전이 예상되는 만큼 지난해 성적(15위)보다 좋은 성적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국영은 3관왕을 노리고 있다. 권수영의 김태균·장예솔도 다관왕

이 접진이다.
전남 선수단도 사전 경기로 치러진 4개 종목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6개를 획득했다.
전남 선수단의 경우 1990년대 세계를 주름잡았던 복싱 종목에서 금메달을 수확하며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전남복싱연맹 소속 이도재가 22일 남자일반부 라이트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주태웅(전남기술과학고)이 헤비급 금메달을 수확했다.
전남은 펜싱·체조 부문에서 애초 예상과 달리 저조한 성적을 보였지만 다음달 단체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 /김지율기자 dok2000@연합뉴스

김우진 양궁 프레올림픽 개인전 금

김우진(정주시청)이 내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앞서 열린 양궁 테스트이벤트 대회(프레올림픽)에서 남자개인전 금메달을 땀다.
김우진은 23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삼보드로